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일드에서'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11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수도자가 사는 집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아직 끝나지 않은 출가
일기일회	11	도량의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수도자가 사는 집	16	수도자가 사는 집
법정 스님의 숨결	32	맑고 향기롭게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7	대원각과 길상사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41	세상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법정 마음의 온도	42	맑은 가난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44	적적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 없으니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309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德祖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아직 끝나지 않은 출가

글·법 정(法 頂)

나는 아마 전생에도 출가 수행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직관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금생에 내가 익히면서 받아들이는 일들로 미루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그랬듯이, 한 핏줄 한 형제끼리 총부리를 마주대고 미쳐 날뛰던 동족상잔인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 마주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과 이념이 무엇이기에 같은 형제와 겨레끼리 물고 뜯으며 피를 흘려야 하는지 어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

창 시절에 밤을 세워가면서 묻고 또 물으면서 고뇌와 방황의 한 시절을 보냈다.

나는 한반도의 서남단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의 유달산 자락에서 꿈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자랐다. 스물네 살 때 마침내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씨락눈이 내리는 어느 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그때의 심경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휴전이 되어 포로 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 삼국을 선택하여 한반도를 떠나간 사람들의 바로 그런 심경이

었다.

집을 나온 나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대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차로 서울에 내렸다. 봉익동 대각사에서 만난 월정사의 한 스님 말이 며칠 전에 내린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어 한동안은 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아는 스님의 소개로 안국동에 있는 선학원에서 효봉 선사를 친견하고 출가의 결심을 말씀드렸다. 내 얼굴을 살펴보고 생년월일을 묻더니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하셨다. 그 날로 조실방에서 삭발,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선사께 인사를 드리자 선 뜻 알아보지 못했다. 곁에서 누군가 방금 삭발하고 옷 갈아입은 행자라고 말씀드리니 “허허, 구참舊參 같구나!”라고 하셨다. 구참이란 오래된 중이란 뜻이다.

삭발하고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훤히 날 듯 어찌나 기분이 좋

던지 나는 그 길로 밖에 나가 종로 통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무렵 한국 불교계는 교단정화 운동이 시작되어 어수선했다. 나는 효봉 선사의 거처인 통영 미래사彌來寺로 내려가 하루에 나무 두 짐씩을 해다가 아궁이마다 군불을 지피는 소임을 보면서 늘 배가 고팠던 행자 시절을 보냈다.

한번은 절 우물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시멘트를 운반하는데, 통영 시내에서 겹도 없이 시멘트 두 포를 지게에 지고 용화사까지는 무난히 왔는데 재를 넘기 위해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니 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한 포씩 저 날랐다. 내 생애에서는 처음으로 젖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이다.

여름 안거가 끝난 7월 보름 해제 날에 계를 받고 중이 되었다. 그 이튿날 선사를 따라 지리산 쌍계사 탑

전으로 옮겨갔다. 여기에서 1년 남짓 착실하고 빈틈없고 엄격하고 아주 조심스러웠던 ‘꽃중 시절’을 보냈다.

나는 이 시절을 두고두고 감사한다. 무슨 일이나 처음 먹은 마음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몸소 겪어 터득할 수 있었다. 그때 여럿 속에 섞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저렇게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아찔해진다. 출가란 살던 집에서 몸만 떠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고 익히면서 거둬거둬 태어나므로써 새로운 삶을 이룰 때 ‘집착과 갈등의 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출가수행의 길에는 눈 밝은 스승과 어진 도반道伴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고 익힌 대로 풀리기 때문이다.

해인사 선원禪院에서 좌선을 익히고 강원講院에서 불교의 경전을 대하

면서 한국 불교의 현실 앞에 적잖은 갈등과 회의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 지극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이런 수도생활에 선뜻 용해되고 싶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장경각藏經閣에서 따로 예불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응시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런 해인사 시절 내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때 선원의 조실 스님으로 금봉錦峰 선사가 계셨는데 함께 조실방에 들어간 도반과 선사의 문답을 곁에서 듣다가 나는 번쩍 귀가 뜨이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도반이 조실 스님께 여쭙었다.

“저는 본래면목本來面目 화두話頭를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본래면목이란 부모에게서 낳기

이전 본래의 내 모습은 무엇이나는 의문이다. 화두란 참선할 때 끝없이 추구하는 명제다. 이 말을 들은 선사는 즉석에서 다그쳤다.

“본래면목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의 그대 면목은 어떤 것인가.”

이 법문을 곁에서 듣고 섬광처럼 부딪혀온 그때의 전율 같은 감흥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더 물을 길이 없었다. 이때부터 좌선하는 일에 재미가 나서 무료하지 않았다. 잔잔한 기쁨으로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일은 방선(放禪) 시간에 법당 돌레를 거닐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온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장경각에서 내려오면서 나를 보더니 불쑥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는냐고 물었다. 방금 보고 내려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 그 빨래판 같은 것이요?”라고 되물었다.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이 말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나는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고 익혔다. 국보요, 법보라고 해서 귀하게 모시는 대장경판이지만, 그 뜻이 일반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한낱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끝없이 부추겼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할 것인가, 이것이 그때 내게 주어진 한 과제였다.

그 몇 해 뒤 통도사에 계신 운허(耘虛) 스님에게서 한 통의 서찰이 왔다. 자금을 덜 시주가 나타나 숙원이던 불교사전을 만들까 하는데 통도사에 와서 편찬일을 도와줄 수 없겠느

나는 사연이었다. 기꺼이 동참했다. 1960년 초봄부터 이듬해 여름 사전이 될 때까지 편찬일을 거들었다. 이 기간에 4·19 혁명과 5·16 쿠데타를 겪었다.

이때 운허 스님과 맺은 인연으로 해서 원고지 칸을 메우는 업이 지속되었다. 동국역경원을 개설, 그 초창기의 작업으로 산을 떠나 서울 봉은사에 머물면서 군사독재의 격동기를 맞이했다. 장준하 선생과 함석헌 선생을 가까이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어용화된 불교종단에서는 이런 나를 마치 무슨 보군자처럼 취급하였다. 기관원이 절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감시하고 걸핏하면 연행해가 괴롭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군사독재의 당사자들에 의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1975년이던가, 이른바 인혁당(人革黨) 사건으로 한 무리의 반정부 세력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반체제 쪽에서는 이를 정치적인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이자 군사독재자들은 사형을 언도한 바로 그 다음 날 여덟 명 전원을 사형집행하고 말았다. 사법사상 일찍이 그 유래가 없었던 이런 만행 앞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나는 자책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조작극이라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자 보란 듯이 재빨리 사형을 집행하고 만 것이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한 이와 같은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색 출가 수행자로서 마음에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는

다는 일 또한 자책이 되었다. 무슨 운동이든지 개인의 인격형성의 길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 수행자가 되었는데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그릇과 삶의 몫이 무엇인가도 다시 헤아리게 되었다.

1975년 10월 거둬 털고 일어서는 출가의 각오로 미련 없이 서울을 등지고 산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소홀했던 '중 노릇'을 다시 익히고 길들였다. 그때의 내 심경은 이웃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관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일단 불이 잡힌 다음에는 각자의 원위치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조계산에 들어와 다시 중 노릇을

익히면서 산 지 어느덧 15년.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켜보면서 눈을 맑히고 숨결을 고르게 한 세월이었다. 안이해지려는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재출가의 의지로 지난해 겨울 나는 인도와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여러 종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다.

그때 한결같이 생각한 과제는 '종교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였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혹은 유태교와 기독교, 회교 등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사랑이요 자비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부터 종파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싸움과 증오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과 자비는 종교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구체적인 일상의 이웃과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마음씨가 교류될 때 세상은 비로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진짜와 사이비의 갈림길은 자기중심적인 독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를 일상에 실현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랑이 곧 하느님이고, 자비심이 곧 부처요 보살이기 때문이다. 자비야말로 지성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다.

지난여름 파리에 사는 화가 방혜자 씨가 가족들과 함께 내 산거에 들렀다. 그때 함께 온 일행 중에 스위스에 사는 철학자 한 분이 후박나무 아래서 무슨 이야기 끝에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스님이 혼자서 이런 산중에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산중에서 사는 일이 사회적

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틀에도 간섭이 없이 그저 내 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내리려는지 잔뜩 찌푸린 날씨에 바람 끝이 차다. 부엌에 들어가 군불을 한 아름 지펴야겠다. 1991

•발췌 : 「버리고 떠나기」



도량의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글 • 법 정(法 頂)

오늘은 길상사 창건 기념일이니, 이 기회에 길상사가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 교단에서 세운 절은 그 시작부터가 시주의 보시에 의해서였습니다. 최초의 절은 마가다국의 근교에 있는 죽림정사(竹林精舍)로,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의 발심에 의해서 세워진 절입니다. 그는 부처님이 수행자이던 시절에 이미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교단이 형성되자 절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제가 불일암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겨울이면 직접 끓여 먹는 자취 생활이 지겹고 세상 구경도 할 겸

1987년 겨울부터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광사 분원 고려사에 가서 서너 달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경전 번역 일거리를 가져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러기를 아마 4, 5년 했을 것입니다.

이 무렵 서울 성북동의 요정 대원각의 주인 김영한(金英韓) 여사를 고려사 화주(시주)인 대도행 보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한님은 당시 <쌤터>에 매달 실리던 저의 글을 읽기 위해 정기 구독자가 되었노라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번거로운 일에 얽혀 들기 싫어하는 천성 탓에 마음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거처를 강원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해 겨울, 중이 하는 일이 없이 공밥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자책을 느꼈고, 세상에 도움이 될 일을 이것저것 모색하던 차에 '맑고 향기롭게' 살기 운동을 전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 쓰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생겨 구체적인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거듭되는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만들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無住相 보시(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는, 보시라는 생각 자체를 잊는 진정한 보시)로 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다짐

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이 다 이런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사찰 운영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그때 '맑고향기롭게' 이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저쪽 재산관리인이 앞으로 절을 운영하는 데 재단법인을 만들어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절을 세우는 처음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절살림에 이사와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절에 사는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절살림입니다.

그사이 다른 여러 스님들이 이곳에 절을 세울 생각으로 시주의 조건에 맞도록 절을 만들겠다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시주 김영한 여사의 뜻은 10년 동안 초지일관, 오로지 저에게 이 장소를 맡기겠다는 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9년 전 길상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상사가 창건된 지 얼마 안 되어 시주가 세상을 뜨게 되자, 저쪽 재산 관리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절의 일부 부지(지금의 지장전과 주차장 자리)를 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절은 종단의 공동 재산이지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주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지만, 절은 개인의 사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승가의 규범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송광사 분원으로 이 절을 종단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절에 어떤 개인의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절을 세우는 데 어떤 공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교 교단의 계율(율장律藏)에는 승가물(僧伽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사방승물(四方僧物) 또는 상주승물(常住僧物)과 현전승물(現前僧物)이 있는데, 사방승물은 그 도량에 사는 스님들이 함께 쓰는 승단의 공유물을 가르킵니다. 그 절의 건물이나 방이나 전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전승물은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이 사사로이 쓰는 개인의 사물을 말합니다.

사방승물은 현전승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율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과사를 분명하게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길상사에 제 개인의 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산을 내려올 때 행지실(길상사의 주지실)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저는 아직 이 절에서 단 하루밤

도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각이라도 자지 않고 떠납니다. 이와 같은 처신은 제 개인의 삶의 질서이며 생활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 도량에 살지도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 밖의 행위입니다.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노릇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더 맑고 향기로우 집니다.

길상사吉祥寺라는 이름은, 이 절이 세워지기 전에 전 파리에 송광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따랐습니다. 또한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한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절을 세우긴 했지만 자리 잡히기 전까지 저는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절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요정이었던 건물을 절로 바꾸느라 여겨 저기 손대다 보니 빛이 쌓여 갔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원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

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 염원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보살펴 주신 많은 분들, 소임을 보아
온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공덕임을
누구보다도이 도량의 수호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06년 12월 10일 길상사
창건 9주년 기념법회

•발췌 : 『일기일회』

법정 스님 저서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화 보존하는 의미로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구하고자 중고서점을 찾거나, 본회 사무국에 도서 판매 및 재출간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 곤혹스럽기도 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법정 스님 유언 발표 당시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언제든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서적은 <무소유>,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비롯하여 총 17권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서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후원회원(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현재후원중인 회원을 뜻함)이 전자책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재등록하시면, 사무국에서 확인하여 중복으로 후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 전자책 보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혼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도자가 사는 집

글·법 정(法 頂)

출가 수행자가 산으로 돌아와 기대고 있는 것도 날마다 '좋은 날'을 마련 하려는 뜻에서이지, 편안함과 한가로움을 탐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편하고 한가함은 구도가 아닙니다. 하기가 산으로 돌아올 그 무렵에는, 몇 해를 두고 모자라던 잠이나 수풀에 묻혀 실컷 자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자를 짓고 살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태평성세라면 몰라도 늘 맞서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불의와 의가, 악과 선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증오와 사랑이……. 외부적인 현실도 현실이지만 내 안에서 맞서 갈등 하고 있는 내면의 현상도 극복하고 정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

산에 돌아와 살면서 나는 우선 나 자신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만 한 기능과 잠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원시적인 상태 속에 나를 던져 보았습니다. 먹고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툰고 어설픈 것도 세월이 흐르니 자리가 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가지치기 하는 일은 나 자신의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악조건 아래서도 홀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산에는 맑은 이웃이 있습니다. 무심한 나무들이 있고, 다람쥐와 꿩과 토끼와 노루 같은 선한 것들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암자 둘레에 자생하고 있는 대숲과 난초와 차나무들이 내 일상에 물기를 보태 줍니다.

*

오늘날의 수행자들에게는 풍부한 물질과 편리한 시설, 쾌적한 생활환경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육신과 정신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간절한 구도의 염이 일어날 수 없다. 옛 수행자들이 말했듯이, 가난해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데서 구도의 결의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풍부한 물질과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이 오늘의 수행자에게는 커다란 도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려고 구도자로서 투철한 그 질서와 새로운 눈뜸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질서와 이 시대에 대한 눈뜸이 없다면, 너와 나를 물을 것 없이 우리는 도량의 한낱 장식품이나 소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물질만능과 거대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지키고 가꾼다는 종교계까지도 두루 휩쓸고 있다. 여기저기서 때를 만났다는 듯이 앞을 다투어 우뚝우뚝 치솟고 있는 수십 억, 수백 억짜리 교회와 울긋불긋 호사스럽게 세워지는

절들을 보라. 이렇듯 거창하고 호사스러운 건물에서 과연 인간의 정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예수나 석가가 이런 호화찬란한 ‘궁전’에서 살기를 원했던 말인가.

집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와 큰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상업주의와 허세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신앙들인지 아닌지, 참으로 발심한 수행자들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룩한 교회나 큰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허울 좋은 장사꾼의 장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

*

오늘날 우리 둘레에는 절과 교회는 여기저기 많아도 진실한 수행과 믿음은 보기 드물다. 예전에 비하면 먹고 입는 것과 거처가 얼마나 넉넉하고 편리해졌는가. 그럼에도 의인과 눈 밝은 사람은 귀하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인 수행과 교화에는 등한하면서, 사람이 귀한 집안에서 사람은 길러내지 않으면서, 사원의 건물만은 거창하게 짓고 치장을 한다. 이것은 불교를 위해서도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다. 사원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위한 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새로 절은 짓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몇천 관짜리 종을 만드는 일을 가지고 마치 불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 웅장한 절을 짓고 눈부시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의 본분이 아니다. 비록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에 살지라도 깨어 있는 혼으로 발심 수행하고 올바르게 교화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불교는 새롭게 움이 틀 것이다.

*

우리들 자신의 내적인 성전과 법당이 허물어져가는 이 판국에 어디에 또 다른 성전과 법당을 더 세우겠다는 것인가. 국민 소득이 늘고 생활 수준이 구미 선진국의 뒤를 열심히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웃에는 절대빈곤의 계층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빈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선진 조국'의 길도 결코 순탄치 않다. 그 어떤 종파를 가릴 것 없이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이 땅의 종교인들은 그들 자신만이라도 상업주의와 거대주의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

오늘날 한국 불교 출가 승단의 위기는 최대한으로 수용되는 의식주 때문에 마음껏 배워서 펼쳐야 할 법이 최소한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나없이 옛 거울에 오늘의 우리 모습을 비춰보아야 할 것 같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새삼스럽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끓여 먹으러 주방에 들어가기가 아주 아주 머리 무겁다. 버릇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요 며칠 밖으로 나돌아 다니면서 남이 해준 밥을 얻어먹다 보니, 마땅히 손수 해야 할 일인데도 남의 일처럼 머리 무거워진 것이다.

남이 해놓은 밥을 먹을 때는 그저 고마울 뿐. 밥이 질거나 되거나 혹은 찬이 있거나 없거나, 어쩌다 돌이 한두 개 섞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그제 조금도 문제될 수 없다. 남이 차려준 식탁을 대할 때의 그 고마움이란, 자취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놓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결코 복 받을 일이 못 된다. 그런 사람은 남의 수고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

밖에서 돌아올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낮에 닿으려고 일찍부터 서두른다. 그래야 먼지도 털어내고 군불도 지피고 뜰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낙엽을 치울 수 있다. 간혹 차 시간이 맞지 않아 어두워서 빈 집에 돌아오면 썰렁해서 영 어설피다. 서둘러 돌아온 자신의 거처인데도 마음이 붙지 않는다.

이따금 느끼는 일인데, 부엌에 들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하지?’ 그러나 순간. 아니지,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다. 미리부터 걱정을 앞당길 건 없어. 수행자는 그날그날을 최대한으로 살면 그뿐이니까. 홀로 있기를 원했으니 또한 홀로 자신을 형성

해나가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즐겁게 살 것. 이 세상이 즐겁지만은 않으니까 내 자신이라도 즐거움을 만들어가면서 유쾌하게 살 것.

*

빈집에 돌아오면 누가 반겨주는가. 내 암자에서는 새와 나무들이 나를 반가이 맞아준다. 한동안 보이지 않아 궁금했음인지 암자 둘레에 사는 새들은 내가 들어서면 뭐라고 재잘거리면서 내 둘레를 푹푹 날아다닌다. 기와 지붕 틈에서도 짹짹거리며 아는 체를 한다. 날짐승들도 길이 들면 서로를 알아보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처럼 제멋대로 자란 청청한 나무들이 나를 반겨준다. ‘나처럼 제멋대로 자랐다’는 표현은 얼마 전에 나를 따라와 뜰의 나무들을 가지치기해주고 간 운문사의 학인 혜만의 말이다. 향나무건 후박나무건 전혀 손질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란 것이다.

한 그루 한 그루 내 손수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므로 나무라 할지라도 유정有情이 된 것. 유이건 무정無情이건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곁에서 지켜보고 쓰다듬고 보살피준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정이 든 것이다.

*

산중에서 혼자 지내면 무섭지 않더냐고? 무섭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관념적인 것이기도 하다. 자연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어 단지 조명 상태가 밝았다 어두웠다 할 뿐이다.

사람의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무서워지고 생각이 맑으면 밤중이라도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마음의 장난일 경우가 지배적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

어제는 창을 발랐다. 바람기 없는 날 혼자서 창을 바르고 있으면 내 마음은 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하다. 무심의 경지가 어떻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새로 바른 창에 맑은 햇살이 비치니 방 안이 한결 정갈하게 보인다. 가을날 오후의 한때, 빈방에 홀로 앉아 새로 바른 창호에 비치는 맑고 포근한 햇살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주 넉넉하다. 이런 맑고 투명한 삶의 여백으로 인해 나는 새삼스레 행복해지려고 한다.

*

암자를 새로 지을 때 한 평 반쯤 되는 조그만 골방을 다실^{茶室}로 만들었다. 그때 생각으로는 공부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 방에 들어가 차를 마실 요량에서였다.

소창다명 사아구좌^{小窓多明 使我久坐}, 조그만 창에 햇빛이 밝아 나를 오래 앉아 있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겨울철 오후와 초봄에 이 방에 앉아 있으면 서쪽 창으로 스며드는 햇볕이 참으로 아늑하고 포근하다.

응접실이 따로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서너트일 때는 이 방에 맞아 들인다. 지금 생각으로는 처음 집을 지을 때 부엌을 좁히고 방을 좀 키웠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머리 무거운 일을 벌여가면서까지 더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나는 가장 넉넉하고 충만하다고 했는데, 조그만 방이지만 이 방에 겨울철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한때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다기를 매만지고 있으면 참으로 넉넉하고 충만한 내 속뜰이 열린다. 이 속뜰에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간사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

요즘의 산이래야 옛날의 산중처럼 맑고 고요하지만은 않다. 어떤 때는 오히려 도시의 주택가가 보다 맑고 고요할 때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에는 모든 생명이 깃드는 곳. 청청한 수목이 자라고 시냇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맑은 바람이 감돈다. 그리고 영롱한 별빛이 있고 투명하고 상쾌한 천연의 공기가 있다. 이와 같은 천진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봄으로써 자신의 투명도와 분수를 때때로 가늠할 수 있다.

일 때문에 시끄러운 저자에 나가 머물지라도 수행자는 그의 고향인 숲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 이따금 그 숲에 돌아와 때를 벗길 줄도 알아야 한다.

*

맑게 갠 날 아침 큰마음 먹고 방청소를 한다. 나는 몹시 게으른 성미라 미적미적 미루다가 큰맘 내어야 청소를 한다. 방석을 밖에 내다 털어 말리고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고 말끔히 걸레질을 한다. 우물가에 가서 걸레를 빨아 넣고 방석을 거두어다 제자리에 놓는다. 말끔히 청소된 빈방

에 앉아, 향로에 향을 사르고 차를 달여 마신다. 이때의 맑은 한기(淸閑)를 나는 즐긴다. 그저 맑고 고요하고 넉넉할 뿐, 이 밖에 다른 바람은 없다.

햇살이 포근하게 들어오는 맑은 창 아래 앉아,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옛 성현들의 귀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할 때에도 나는 그 맑은 고요와 한가를 누린다. 이런 순간에 나는 내 삶의 잔잔한 기쁨과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밥맛은 모르고 지내지만, 산중에 사는 그 맛은 알고 있다.

*

10년 동안 내가 거처하는 방은 집 지을 때 맡고는 그 후 한 번도 도배를 하지 않았다. 향 연기와 촛불에 그을려 벽과 천장은 우중충해졌고, 방구석은 더러 곰팡이가 슬어 있다. 깨끗하고 산뜻하고 정돈된 상태를 좋아하는 성미이면서 오늘까지 도배를 하지 않은 것은 일 별이기가 너무 머리 무거워서였다.

그러나 올 가을에는 하는 수 없이 도배를 하려고 단단히 베투고 있다. 무엇보다 책을 비롯한 소유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도배를 하는 일은 이사 가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다. 세간살이를 죄다 밖으로 꺼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소유와 삶의 양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종이로 벽과 천장과 바닥을 바르는 일만이 아니라, 의식까지도 새로 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렸다. 우물과 정랑으로 가는 길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깡충깡충 뛰어간 토끼 발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대숲가에서는 나는 기러기떼처럼 꿩의 발자국이 외줄로 질서정연하게 찍혀 있었다. 짐승이나 새의 발자국에 견주면 사람의 발자국은 너무 우악스럽다. 하얗게 쌓인 눈을 밟기가 조금은 미안하다.

눈 위에 찍힌 짐승의 발자국이 아름다운 것은 가장 천연스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사람의 자취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워 우악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다. 어느 깊은 두메산골에 화전민이 살다가 비운 오두막이 있다는 말을, 한 친지로부터 전해 듣고 결심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서둘러 달려갔기 때문에 봄날의 긴 해가 기울고 땅저미가 질 무렵 가까스로 그 오두막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곳적 그대로인 곳이었다. 시냇물 소리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뻗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머슴새가 번갈아가면서 밤새 울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머릿속이 아주 개운했다. 시냇가에 나가 흘러가는 물을 양껏 떠 마셨다. 문명의 발톱이 할퀴지 않은 곳이라, 흐르는 시냇물 인데도 물맛이 아주 좋았다.

*

올봄은 내게 참으로 고마운 시절 인연을 안겨주었다.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말이 진실임을 터득하였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며 자유롭고 흥가분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을 뜻한다. 불일암에서 지낸 몇 년보다도 훨씬 신선하고 즐겁고 복된 나날을 누릴 수 있어 고마웠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할 수 있다면 그런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으로 옮겨가고 싶다. 사람이 많이 꼬이는 절간에서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도 없다. 죽은 후의 치다꺼리는 또 얼마나 번거롭게 पे스려운가.

나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두메산골의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가 훗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다.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겠다.

*

지난봄을 고비로 내 삶에는 안팎으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지하고 살던 거처에 대한 미련에서 훨훨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소유와 관계를 정리 정돈하면서 다시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타성적이고 비본질적인 삶으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합니다.

이 오두막은 거의 원시 상태입니다.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해발 7백 고지가 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삼복에도 더위를

모르고 하루걸러 군불을 지피고 밤으로는 이불을 덮어야 합니다. 모기와 파리 같은 귀찮은 물것도 없습니다.

고마운 것은 오두막 가까이 맑게 흐르는 개울이 있어 아무 때고 나가 씻거나 빨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으면 세월의 뒤뜰이 넘어다 보이기도 합니다. 개울가 바위 끝에 좌정하고 있으면 내 속 뜰에서 꽃 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

이 오두막에서는 시냇물 소리를 베고 잠들었다가 새벽 새소리에 잠에서 일어난다. 휘파람새와 머슴새가 뒤결에 날아와 나를 깨운다. 어둠이 사라지고 창호에 밝음이 서서히 번져오는 여명의 시각, 내 의식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맑고 신선하다. 꽃망울로 묶여 있던 의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이런 순간 나는 삶의 고마운 속뜰을 거닌다.

*

이곳 두메산골의 오두막에서 지내니 편지를 보낼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다. 이 오두막이 행정구역상 어디에 소속되는지 아직도 나는 모르고 지낸다. 따라서 집배원이 찾아올 일도 없고 내가 우체국을 찾아갈 일도 없다.

이따금 소용되는 물건이나 옷가지를 챙기러 불일암에 내려가면 주인을 기다리는 우편물들이 쌓여 있다. 그전 같으면 답장을 띄워야 할 사연들에도 요즘에는 거의 생략하고 있다. 오고 가고 하는 번거로운 인연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

나는 이 오두막에 와 살면서 내 자신을 만나고 되찾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고맙게 여긴다.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홀가분한 자유를 찾는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슬이 없다. 기억의 사슬도 없고 욕망의 사슬도 없다. 시냇물이 흐르듯 그저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정신적인 데에 있다.

*

사람들에게 시달린 나는 이 산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불쑥 불쑥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좋다. 내 얼굴 표정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짜증스러워하던 그 그림자가 사라져서일 것이다. 앞에 든 시에서 '외떨어져 사니 문 두드리는 사람 없고'라는 구절이 나는 가장 마음에 든다.

이 오두막에는 작은 내 원불(願佛)이 모셔져 있다. 불단에 향을 사르면서 예불을 드리고 좌선을 하고 글을 읽고 혹은 쓴다. 그러면서 불법을 만나 출가 수행승이 된 인연에 늘 고마워한다.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어른의 '백'이 있으니 다행하고 든든하다.

*

이 오두막에 만약 전기가 들어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상상만으로도 시들하고 맥이 빠진다. 전기가 들어오면 텔레비전이며 냉장고며 오디오 기기도 따라올 것이고, 그 밖에 소용되는 온갖 가전제품도 덩달아 밀려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연장들을 다루느라고 내 의식은 많이 분산될 것이고 오두막이 지닌 맑음과 고요와 단순성을 잃고 말 것이다. 나 같은 기질은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만, 맑음과 고요를 잃게 되면 삶의 알맹이마저 빠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불편하고 모자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나는 오히려 다행한 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문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연과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에는 독성이 들어 있다. 문명은 점진적으로 사람을 시들게 만든다. 그러나 자연은 원초적인 것이고 건강한 것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의지처이다.

*

나는 20년 남짓 홀로 사는 일에 이골이 나서, 이런 외떨어진 산중에서 홀로 지낼 때가 가장 흥가분하다. 내 삶이 가장 충만할 때가 바로 이런 격리된 환경에서다. 물론 홀로 지내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한데 모여 살면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중생 놀음에 견주면, 그 어떤 불편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무리를 지어 어울려 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없지 않지만,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시시콜콜한 일에 시간을 탕진하고 신경을 소모하는 일이 너무 아깝다.

나는 내 삶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닦지 않으면서 내 식대로 살고자 한다. 자기 식대로 살려면 투철한 개인의 질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질서에는 게으르지 않음과 검소함과 단순함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도 포함된다. 그리고 때로는 높이높이 솟아오르고 때로는 깊이깊이 잠기는 그 같은 삶의 리듬도 뒤따라야 한다.

*

내가 이 산중의 오두막으로 온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어떤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누구의 신세를 지거나 방해받음 없이, 보다 간소하게 내 식대로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해서다.

*

한동안 오두막을 비워두고 있다가 돌아와 보면 오두막은 주인을 기다리며 사뭇 여위어 있다. 집 둘레에 노루와 토끼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보면 그 애들이 빈집을 지켰던 모양이다. 문을 열어젖히고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고,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 굴뚝에 허연 연기가 피어 올라오면 이때 비로소 집은 숨을 쉬기 시작한다.

집은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집으로서 빛을 발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혼이 빠져 나간 육신처럼 그것은 단순한 자재로 엮인 형해(形骸)일 뿐이다. 난로에 불을 지펴 마루방에서 냉기를 몰아내고 방 안에 훈훈한 온기가 돌면, 오두막이 좋아라 하며 제 기능을 발휘한다. 집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아늑하고 편안함이 차 향기처럼 은은히 번진다.

*

출가 수행자에게는 원래 자기의 집이란 따로 없다. 설사 자신의 힘으로 지어 놓은 절이나 암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이지만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절이 1천여 년을 두고 우리 모두의 절로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저 인연 따라 한때 머물다가 그 인연이 다해 떠나면 그뿐이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버리고 떠나갈 텐데, 나무와 흙과 돌과 쇠붙이 등으로 엮어 놓은 건조물에 얽매일 수 있겠는가.

*

이 산 저 산, 이 절 저 절을 다니면서도 이곳이야말로 영원한 내 안식처라고 생각한 데는 아직 없다. 인연 따라 머무는 날까지 머물면서 나가꾸고 다듬을 따름이다. 언젠가는 이 껍데기도 벗어 버릴 텐데, 영원한 처소가 어디 있겠는가. 그 전 같으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옮기고 고치면서 당장에 해치우고 마는 그런 성미였는데, 이제는 어지간하면 주어진 여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일없이 간소하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그 대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나답게 살고 싶다.

*

무슨 인연으로 나는 이 산골의 오두막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묵은 등지를 떠나 새롭게 시작한 오늘의 삶을 고마워한다. 언젠가는 이 껍데기도 벗어 버리고 훨훨 뿌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인생의 그 선달 그믐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 미련도 없이 나그넷길을 훌쩍 떠나듯 그렇게 다음 생으로 떠나고 싶다.

맑고 향기롭게

글 • 변택주

1993년 가을 어느 날, 화전민이 살다 떠난 산속에 혼자 사시던 법정 스님이 불쑥 서울 사간동 법련사法蓮寺 나들이를 하셨다. 법정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여러 사람이 법련사로 스님을 찾아뵈는 자리에서 스님은 “중이 밥값은 하고 가야겠기에 이 일 한 가지는 꼭 하고 싶다.”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다.

‘맑고 향기롭게’는 스님이 늘 품고 계시던 화두였다. 종교를 떠나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방송인 이계진 씨, 동화작가 정채봉 씨, 작가 윤청광 씨, 출판인 김형균 씨, 공직자 이성용 씨, 부산 기업인 박수관 씨, 광주 조선대 고현 교수, 방송작가 김자경 씨, 청학 스님, 그 밖에 몇몇 이가 스님이 내려주신 “맑고 향기롭게”라는 화두로 실천 지침을 마련했다.

“흔히들 마음을 맑히라고, 비우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을 맑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는 없다.

또 실제 생활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이처럼 여겨지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다. 마음이란 결코 말로써, 관념으로써 맑혀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선행(善行)을 했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선행이란 다름 아닌 나누는 행위를 이른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 있던 것들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일 뿐이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인간이 적은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자연 오염, 환경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천연 생수처럼 자연이 인간에게 무한정 베푸는 것에 비하면 인간은 자신들 편리함, 편안함만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인간들 이기심,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이제는 자신들 생명마저 위협할 지경이 되었다. 이제 우리들, 인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한다. 물질 노예가 아닌 나눌 줄 알고, 자제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알고, 서로 손잡을 줄 아는 심성을 회복해 가야만 한다. 이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길이며, 삶을 풍요롭게 가꾸가는 방법이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
냄이 없고 샳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길을 함께 하고자 여러분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
하는 바이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
에서 첫 출발 실천 큰 모임을 갖고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를 나눠
주기 시작했다.

모임을 이끄는 회주^{會主}는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상징이 연꽃 이어서
불교운동으로 오해하는 분도 더러 있었지만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이어
가자는 스님 뜻에 따라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를
비롯해 종교를 초월해 기꺼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맑고 향기롭게는 다른 단체처럼 정해진 회비가 없다. 회비를 내지 않더라
도 몸으로 나눔을 하면 똑같이 향기로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란 뜻에서다.

이 운동은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급, 양로원 돕기, 환경보호, 걸식아동
돕기, 노숙자 급식, 생태기행, 꽃밭 만들기 같은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향기롭게 가꾸는 일을 소문내지 않고 실천해 왔다.

종로 운니동 자그마한 오피스텔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던 ‘맑고 향기
롭게’는 회원들이 모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맑고

향기롭게 사랑을 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곱다라니 살가운 정情가름이 줄을 잇고 있었다.

옛날 경허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

“여러분은 모두가 수도자입니다. 여러분 삶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여러분 개개인 집착이나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나무나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장애입니다. 그것은 참된 수행자가 되는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절을 짓기 위해 큰 나무를 쓸 줄 알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만들려고 작은 나무를 쓸 줄 아는 숙련된 목수가 되십시오. 큰 나무는 큰 쓰임이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쓰임이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이란 자기 마음자리를 제대로 찾고 세상과 자연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삶이다. 향기로운 삶이란 세상과 자연을 향기롭게 가꾸기 위해 마음이나 몸을 제대로 써서, 너를 살리고 빛내는 목수로 사는 일이다.

‘맑고 향기롭게’가 길상사로 이사 온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끔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연락이 왔다. 김자경 실장은 법정 스님께 그 돈을 받을지 여부를 여쭙다.

“내 생각은 이래요. 우리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 마음을 맑히고, 회원들 몸을 움직여서 나누고, 또 우리 주머니 형편에 따라 능력껏 세상과 자연을

향기롭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기관에서 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스스로 능력에 맞춰 업을 일구어 갈 것이지 다른 힘을 빌려서 운동을 할 것은 없다는 준엄한 말씀이다.

스님은 흔히들 마음을 비우라고들 하지만 마음은 쓰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신다. 마음씀, 고갱이는 나눔이다. 우주 선물을 고르게 나누는 일이 마음을 제대로 쓰는 일이다. 맑음은 저마다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이 사회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이다.



변택주·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우자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대원각과 김상사

글 • 고 현

법련사 골방을 떠나 비원 건너편 7층 오피스텔에 쪽방 사무실을 얻어 전국 회원 1만여 명을 이끌고 3년 째 북적대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렇다 해도 전국 회원들이 모여든 일 년에 몇 번씩 치르는 큰 행사는 계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원들 하계 연수 시민선방 워크숍, 송년 음악회 등 행사 때면 지정사찰이 없다 보니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다. 한 해는 청도 운문사, 또 한 해는 김천 직지사로 또 다음 해는 장성 백양사로……, 언제까지 전국을 상대로 떠돌아야 하는 것인지, 법인 이사들이나 지방 본부장들은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씩을 안고 있었다.

뿌리가 없다 보니 꼼짝없이 설 곳 없는 언 병아리 신세들이었다. 그 무렵 대원각 김영한 보살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기별이 들려왔다. 본부 이사급들은 스님과 노보살 사이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스님의 뜻을 이미 아는 터라 대부분 병어리 냉가슴들이었다. 거론 자체가 금기였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시주할 테니 부처님일에만 써달라’는 노보살의 숭고한 뜻이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얽매어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는 스님의 벽 앞에 막혀 있었다. ‘반드시 법정 스님께만 드리겠다’와 ‘내 삶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강제와 거절이 10년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었다. ‘무주상보시’와 ‘무소유’ 사이의 고집과 냉전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결국 여기에 맑고 향기롭게 법인 이사들과 전국 본부장들로 구성된 이사급 들이 작심을 하고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집단적으로 파문을 당하거나 인연을 접고 내쳐질 각오로 집요하게 스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스님을 모셔왔고 후일 초대 주지가 되었던 청학 스님을 중심으로 심지어 ‘무소유’ 철학까지 걸고넘어지는 파상공세의 대반란이었다.

“날이 갈수록 가족 수는 불어나는데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해마다 행사 때가 되면 이 절 저 절 떠돌며 동냥질도 한두 번이지, 어디 한 곳 기댈 곳도 없으면서 이 모임은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만약 그 재산이 잘못 전해져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못 하고 역기능으로 작용하거나 개인적 사유물로 전락해버린다면 스님의 도의적 책임 또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노보살의 10년 발원 소망을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 스님의 자비행입니까?”

“80 노보살이 병원에 입원하신 후 그토록 스님을 찾으신다는 데 재산 상속의 부담으로부터 ‘무소유’를 지킨답시고 문병 한 번 가지 않는 것이 스님의 인사법이고 무소유의 실체입니까? 그 무소유는 철학을 위한 무소유입니까 실천을 위한 무소유입니까?”

설득, 협박, 고언, 압력, 읍소가 몇 달째 계속되었다. 결국 노보살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위독하다고 침소봉대할 수밖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요지부동이다 보니 노보살님의 목숨을 담보로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만남 자체를 거부하시니 대화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스님께서 문병 가신 현장에는 동행하지 못했지만 후일 노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다. “법정 스님이 아니라도 여러 스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심지어 법정 스님만 스님이라는 원망도 들었고, 다른 스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들도 훌륭한 일에 잘 쓰실 수 있으리라 믿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로지 법정 스님만 찾았던 이유는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어갈 이 시대의 도량다운 사찰 하나 남기고 싶은 소망을 지금껏 발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이 스님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려면 그 뿌리는 하나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병상에 누운 노보살의 간절한 호소 앞에 ‘이것도 시절인연인가’ 당신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1986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마음을 굳힌 김영한 보살의 발원으로 우리나라 3대 요정 중의 하나였던 대원각 大苑閣의 대변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5년 6월, 송광사 말사 ‘대법사로 우선 조계종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정 자리에 분냄새, 고기냄새를 털어내고 어느 정도 가람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자 1997년 12월, 오늘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吉祥寺’는 전설 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나는 한 권의 책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가. 사람의

행행을 악마로도 천사로도 만들 수 있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재물에 대한 인식을 크게 깨치게 되었다. 노보살의 소망이 이루어지던 날 그녀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소회를 남겼다.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있는 것을 드렸을 뿐, 도리어 민망할 뿐입니다. 그 재물이란 게 그분(백석)의 시詩 한 줄만도 못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시주하면서 시 한 줄의 가치만도 못하다는 이 여장부의 불심佛心 한마디. 그래서 그녀를 사람들은 기녀 만덕萬德 과 곧잘 비교하곤 했다. 18세기 정조대왕 때 가뭄과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제주도민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 살려냈던 기생 만덕을 떠올리며 ‘김영한’ 그녀의 공덕과 칭송은 온 국민의 화제가 되었다.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세상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글 • 법 정(法 頂)

어제 해인사를 아주 떠나오고 말았다. 너무 오래 한 군데서 살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하기에 너무 평범한 곳이 되고 말았다.

내가 이제 갈 곳은 교통도 통신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아주아주 궁벽한 산중일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 철저히 수도해야겠다. 그저 편히 살기 위해 출가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어제 떠나오면서도 해인사에다는 내가 갈 곳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세상일과 이제는 정말 반연을 끊고 싶기 때문에. 몇 년이고 수도만 하다가 세상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전에 부친 편지와 책들은 잘 받았는지? 부디 남은 기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히 지내다가 귀가하기 바란다. 그럼 잘 있거라. 연락이 된다면 성남이에게도 소식 전해라. 우수영과 목포에다도 이 편지와 함께 알렸다. 안녕히

1964년 1월 14일, 대구에서 법정 합장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맑은 가난

글 • 김옥림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 법정 -**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안락하게 했으나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향해 걸어가게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로 몰리고, 사행성 오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 여파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먹고살 만하고 넘치니까 자꾸 탄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무덤이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거나 생활할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넘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이다.

일부러 가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물질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부피에 관계없이 타락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이르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됨으로써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살기에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깨끗한 내가 되어야겠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적적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 없으니

글 • 야운 선사

나무 뿌리와 열매로 주린 배를 달래고
송락과 풀옷으로 이 몸을 가리며
들에 사는 학과 뜬 구름으로 벗을 삼아
깊은 산골짜기에서 남은 세월 보내리
몸과 마음 선정에 들어 흔들리지 않고
오두막에 묵묵히 앉아 왕래를 끊는다
적적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 없으니
마음 부처에게 저절로 돌아가다

• 발해 : 「홀로 사는 즐거움」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21년 탁상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1년 탁상달력을 11월 중순경 발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말일까지 후원이 없고 11월 ~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1년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 해드립니다.



본회는 2018년부터 탁상용 달력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 거주시설이 늘어나면서 긴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와 우편배달 과정에서 달력 고리나 스프링 파손 등으로 재발송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매년 길상사 창건 기념법회일(12월 13일(일))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나눠드리므로, 필요하신 분은 길상사에 나들이 하시어 받아 가시면 됩니다. (단, 우편발송은 불가합니다.)

간혹 후원회원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여 누락된 경우나, 후원회 원임에도 우편분실로 인해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중앙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달력은 (사)맑고 향기롭게 5대 이사장(덕조 스님)께서 촬영한 사진작품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반조리 식품으로 나눔을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시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오전 10시~오후 1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지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11월 3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 기도	11월 7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1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1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1월 7일 (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기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1월 3일 (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1월 9일 (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11월 15일 (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1월 21일 (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결제법회

- 일시 : 11월 29일 (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안내

- 일 시 : 11월 26일(목) 오전 7시 ~ 오후 3시
-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변의 외로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김장을 담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김장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김치를 납품받아 결연어웃에게 전달하고 있는 농가식품(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위생과 맛이 우수한 순수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김장을 구매하여 460여 가정에 각 10Kg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원활한 일상생활 및 활기찬 봉사현장으로 복귀되길 기원해봅니다.

김장 후원 동참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공덕주 길상화(吉祥華)보살 기재 안내

11월 21일(토) 오전 9시 50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하신 김길상화보살님의 기재가 오는 11월 21일(음력 10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극락전에서 마련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실천하신 길상화 보살님의 뜻을 기리며, 길상스런 세상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많고 향기롭게

길상사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귀의하고 환희심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길상화 영가는 다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정토에 왕생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절이 존속하는 한 그 공덕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칭송될 줄 믿습니다.

- 법정 스님 「길상화 보살 49재 천도 발원문」 중에서 -